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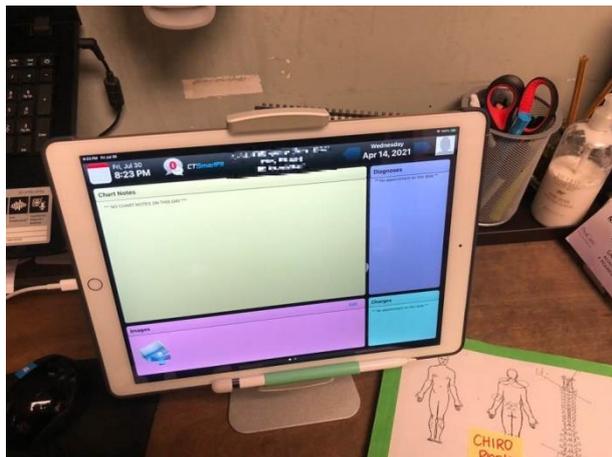
미국 물리치료 임상실습 일기 :: 5편

미국 임상실습 한 달 차, 몸과 마음이 현지 생활에 점점 적응해 나가는 느낌이 들지만 배워야 할 것들과 경험해봐야 할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환자 노트(Patient note) 작성

뉴저지의 물리치료사는 'Referral(의뢰)'을 통해 또는 Direct로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 대해(주마다 그리고 환자의 보험 상태에 따라 상이하다.) 물리치료학적 검사와 진단을 수행하고 실제 치료와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된 처방을 내린다. 그 후 Re-evaluation(재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 새로운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다른 health care provider에게 refer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물리치료사 원장님을 포함한 클리닉의 다른 Health care provider 선생님들(Doctor of Chiropractor, Acupuncturist)의 업무에서 환자 노트(Patient note) 작성이 가장 눈에 띄게 들어왔다. 클리닉의 매뉴얼 노트 작성 함께 'Chirotouch' 소프트웨어를 통해 환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s)을 initial(초진)과 Re-evaluation(재평가) 기준으로 입력하게 되어있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환자의 변호사, refer할 외부 병원 등에 보내고 받을 서류를 Reception과 함께 처리하는 것 역시 물리치료사의 업무 중 하나였다.



환자 EMR 작성을 위한 'Chirotouch' 소프트웨어

Reception에 정리 되어 있는 환자 노트들(Patient notes)

선생님들의 서류 업무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영문으로 읽고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의 중요성은 한 번 더 일깨워 주었다. 또 클리닉 내 쌓여 있는 엄청난 양의 환자 노트들을 보면서 서류 작업을 잘 수행해내는 것도 병원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미래에 닥칠 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환자 X-ray 촬영

이번 주에는 실습 중에 X-ray 검사를 하는 환자가 있어 카이로프랙터 선생님이 촬영 후에 모니터를 통해 PACS를 함께 보면서 자세 정렬과 디스크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선생님은 실력 있는 물리치료사라면 환자 X-ray를 보고 환자에게 근골격계통 문제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계통 질환까지 의심된다면 MD(Medical Doctor)에게 refer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이를 위해 영상진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고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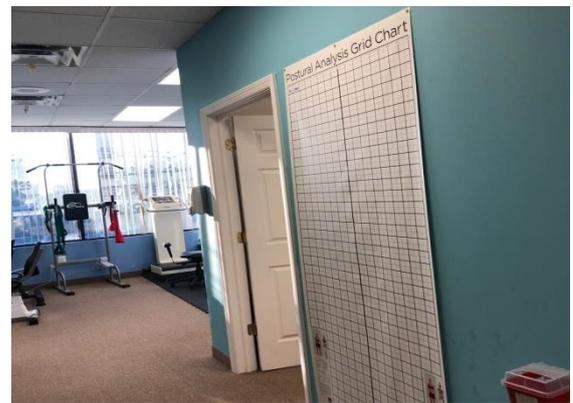
X-ray를 촬영실 바로 앞에 자세 분석 Grid Chart가 있었고 카이로프랙터 선생님께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Chirotouch'를 통해 설명해주셨다. 책에서 봤던 'Kendall'과 'Janda' 자세 분류와 평가를 바탕으로 Grid chart 앞에서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X-ray 촬영실

마무리하며

이번 미국 임상 실습으로 미국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자세히 알게 되고 시스템적인 부분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와보지 못했더라면 실제로 현지에 왔을 때 당황했을 부분이 분명 많았을 것이다. 미국 물리치료를 꿈꾼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많은 후배들이 도전해보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이번 편을 마친다!



자세 분석을 위한 Grid Chart



NYC의 Bryant Park에서